

“기념관 건립·평전 출간 주력”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이해찬 회장



“운암 선생은 혁신적으로 독립운동, 정치혁신 분입이다. 그런 혁신적 인사들이 해방 이후 가장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운암 선생과 같은 분들을 제대로 발굴함으로써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4월의 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 선생(법호 태허)을 선양하는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이하 운암사업회) 이해찬 신임회장(前 국무총리·사진)이 4월 14일 오후 12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운암사업회가 펼칠 사업방향을 밝혔다.

운암사업회 이해찬 회장이 이 자리에서 발표한 사업은 크게 ▲봉선문중 운암선생기념관 건립 ▲운암 선생 평전 출간 ▲운암평년단 활동 독려 ▲강연회 등 지속적으로 기념사업 진행 등이다.

우선 봉선문중 운암선생기념관 건립 건은 운암 선생이 봉선문중 출신 스님이었다는 점, 봉선문중의 많은 스님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에 착안한 사업이다.

기념관에는 운암 선생을 필두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봉선문중 스님들의 유품 및 기록이 전시될 예정이다.

운암 선생 평전의 경우, 님 웨일즈의 <아리랑>을 펴낸 한 출판사와 현재 협의 중이다. <아리랑>은 좌파 독립운동가 김산 선생(본명 장지락)의 일대기를 그려낸 책인데 여기 운암 선생은 ‘붉은 승려’라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한다.

한편 운암사업회는 4월 25일 오후 2시 서대문 독립관 무궁화홀에서 ‘4월의 독립운동가 김성숙선생 공훈선양학술강연회’를 연다. (02)391-9100 김강진 기자

“운암 선생은 혁신적으로 독립운동, 정치혁신 분입이다. 그런 혁신적 인사들이 해방 이후 가장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운암 선생과 같은 분들을 제대로 발굴함으로써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4월의 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 선생(법호 태허)을 선양하는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이하 운암사업회) 이해찬 신임회장(前 국무총리·사진)이 4월 14일 오후 12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운암사업회가 펼칠 사업방향을 밝혔다.

운암사업회 이해찬 회장이 이 자리에서 발표한 사업은 크게 ▲봉선문중 운암선생기념관 건립 ▲운암 선생 평전 출간 ▲운암평년단 활동 독려 ▲강연회 등 지속적으로 기념사업 진행 등이다.

우선 봉선문중 운암선생기념관 건립 건은 운암 선생이 봉선문중 출신 스님이었다는 점, 봉선문중의 많은 스님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에 착안한 사업이다.

기념관에는 운암 선생을 필두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봉선문중 스님들의 유품 및 기록이 전시될 예정이다.

운암 선생 평전의 경우, 님 웨일즈의 <아리랑>을 펴낸 한 출판사와 현재 협의 중이다. <아리랑>은 좌파 독립운동가 김산 선생(본명 장지락)의 일대기를 그려낸 책인데 여기 운암 선생은 ‘붉은 승려’라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한다.

한편 운암사업회는 4월 25일 오후 2시 서대문 독립관 무궁화홀에서 ‘4월의 독립운동가 김성숙선생 공훈선양학술강연회’를 연다. (02)391-9100 김강진 기자

황룡사지 출토 부처님 진신사리 공개



황룡사 사리.



황룡사 청동발각사리함.

신라 천년의 비밀을 담은 경주 황룡사지 출토 사리가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 개관1주년을 맞아 일반에 공개된다.

황룡사지 출토 사리는 자장 법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가져온 역사적 근거가 명확한 불사리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이 문화재적 가치 중심의 접근에서 사리 등은 유물로 취급하지한 신앙 대상인 사리는 유물로 취급하지 않아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있었다. 황룡사지 사리는 2006년 5월 국립중앙박물관 ‘불교미술’ 테마기획전을 통해 일반에 첫 공개된 후 이번이 두 번째로 선보인다.

불교중앙박물관이 개관1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전은 사리, 복장품과 경전미술 등 ‘법보’를 주제로 한 전시로 국보 9점, 보물 25점을 비롯해 총 162건 197점의 성보를 선보인다.

전시는 4개 전시실로 나뉘어 진행된다. 중앙전시실에는 경주 황룡사지 출토 진신사리를 전시해 부처님의 실재를 증명하며, 제1전시실에는 <조조대장경> 중 국내 소재 <대방광불화엄경> <아비달마비바사론> <십주비바사론> 등 5점과 <화엄경> <예수시왕철생경> 등의 변상이 담긴 ‘해인사 사간판’이 해인사 외부에서는 처음 전시된다. 제2전시실에는 <화엄경>

불교중앙박물관 개관1주년 특별전시회 28일 ‘법보展’ 개막...6월 29일까지 개최

로 한 전시로 국보 9점, 보물 25점을 비롯해 총 162건 197점의 성보를 선보인다.

전시는 4개 전시실로 나뉘어 진행된다. 중앙전시실에는 경주 황룡사지 출토 진신사리를 전시해 부처님의 실재를 증명하며, 제1전시실에는 <조조대장경> 중 국내 소재 <대방광불화엄경> <아비달마비바사론> <십주비바사론> 등 5점과 <화엄경> <예수시왕철생경> 등의 변상이 담긴 ‘해인사 사간판’이 해인사 외부에서는 처음 전시된다. 제2전시실에는 <화엄경>

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앞서 4월 23일 오전 10시에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황룡사 사리 이운 고블식 및 사리진건법회를 봉행한다.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법보의 의미를 성보를 통해 재해석해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一即多多即一)인 궁극적 진리에 도달하고자 마련한 특별전시이다. 특히 황룡사지 사리 진건을 통해 황룡사 복원에 교계의 염원이 모아질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3월 개관 기념 ‘불보’전에 이어 올해 ‘법보’전을 여는 불교중앙박물관은 내년에는 ‘승보’를 주제로 삼보시리즈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celana@buddhapia.com

동국대 불교대-호두마을 산학협약

안국선원 이어 두번째 체결



동국대 불교대학장 혜원 스님(사진 오른쪽)과 호두마을 지도법사 능혜 스님이 4월 17일 산학협동교육을 협약했다.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혜원)은 4월 17일 (사)호두마을(지도법사 능혜)과 산학협동교육을 협약했다. 3월 17일 안국선원(선원장 수불)과의 산학협동교육 협약에 이은 두 번째로, 보다 내실 있는 선교겸수(禪敎兼修)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대 불교대 학생 중 선편교사·선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연수수당을 받고,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호두마을에서 수행하게 된다. 호두마을은 연수생의 현장연수 후 평가내용 및 출석 등을 학교에 통보한다. 연수 후에는 호두마을에서 통보된 수행실적 및 출석상황 등을 평가해 전문 3학점을 부여한다.

중호 스님(선학전공 주임교수)은 “선 심리상담사와 선편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수행 전문선원인 호두마을에 학생들을 파견키로 했다. 동국대 학생들에게 부족한 실수행 부분의 해소를 위해 선수행 연수 등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민메카트로닉스 NAVER 지식쇼핑 마미로봇

기독교방송 중계소 설치 서명운동 물의 경남일보, 불교계에 사과

특정 종교 방송국의 중계소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물의를 일으켰던 경남일보가 4월 17일 공개 사과했다.

경남일보는 최근 진주지역교회협의회와 공동으로 ‘극동방송 진주중계소 설치 10만 서명운동’을 주최했다. 지역 불교계가 반발하자 이를 중단한 바 있다. 경남불교협의회와 경남불교신도회 등 지역 불교계는 4월 3일 경남일보구독거부대책위원회(위원장 혜일)를 결성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16일 경남일보 사옥 앞에서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경남일보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경영진 사퇴 ▲공개사과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집회에 이어 경남일보 김홍철 회장, 황인태 사장과 면담을 진행해 황 사장의 사직서 제출과 경남일보 17일자 1면에 사과문 게재 등에 합의했다.

경남일보는 다음 날인 17일 “경남일보가 특정종교 방송국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에 대해 지역 불교계가 종교편향이라는 이의를 제기해 음에 따라 홍보를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며 “불교계에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사고(社告)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여수령 기자

청주불교방송 ‘구지도’ 전시

청주불교방송이 개국 11주년을 맞아 ‘아! 동해 그리고 간도’ 전시회를 연다. 5월 2일부터 22일까지 청주 문화산업재단 3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전시회에서는 미공예 국·내외 고지도 100여점을 비롯한

청주시 옛 사진 자료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회는 목동 영유권과 동해의 명칭,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등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재조명할 수 있는 역사교육장으로 꾸며진다. (043)294-5114 손효선 기자

불 대한불교법상종 수락산 아미타 기도도량 천문사 **행**

극락보전 낙성 및 아미타불 점안 대법회



모시는 글

수락산 아미타 기도도량 천문사가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불사를 원만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공덕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자비로운 5월에 원만 회향을 축하하는 극락보전 낙성 및 아미타불 점안 대법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무무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기도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천문사 주지 진성 합장

법회 안내

- 일시 : 불기 2552(2008)년 5월 3일(음,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천문사 극락보전 (서울 노원구 상계 1동 1000-7번지)
- 문의 : 02)936-9736 / 011-307-3130



도봉역, 노원역, 수락산역, 의정부, 수락산, 천문사, 만남의광장

대한불교법상종 수락산 아미타 기도도량 천문사